섀도우 스타디에(체험판)

[Phase.0] 왜곡된 평화와 쌍둥이 갓 **1**
[Phase.1] 왜곡된 이굴과 작은 자존심 **7**
[Phase.2] 굴욕의 금차기와 오줌 실금 **11**
[Phase.3] 새하얀 바지 둥근 **16**
[Phase.4] 클래스의 여자로부터 왕따의 전기 암마 **21**
[Phase.5] 관장 **26**
[Phase.6] 바지 위에서 항문 플러그 **31**
[Phase.7] 관장하고 항문 마개 상태에서 전기 암마 **37**
[Phase.8] 복도에서 공개 실변 **42**
[Phase.9] 관장의 나머지 향 **48**
[10단계] 제재 **53**
[Phase.11] 완전한 침묵 **59**
[Final Phase] 누나의 불의치는 강초와 좌약과 달콤한 흔들림 **64**
[Extra Phase0] 책상 카드에서 아나니 **76**
[Extra Phase1] 관장 아나니 **81**
[Omake Phase] 에이세이멘 **87**

[Phase.0] 왜곡된 평화와 쌍둥이 갓

교정의 구석에 있는 큰 녹나무 아래에서, 나의 쌍둥이의 언니인 하임이 낯선 남학생으로부터 고백을 받고 있었다.
나는 4층의 교실의 창가에서 뺨 지팡이를 붙이고, 그 광경을 흐릿하게 내려다보고 있다.
「… … 또입니까」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까지는 닿지 않지만, 결말은 볼 때까지도 없다.
하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상대의 말이 끝나는 것을 단지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극히 짧은 말과 함께 양손을 교차시켜 배튼(불량·오류·소거를 의미하는 ✕마크)의 제스처를 취하면,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버렸다.
흔들린 남자가 학생의 무리로 달려 도망치는 것을 옆눈에, 나는 작게 한숨을 낸다.
그 어딘가 우키 떠난 신비한 분위기와 인형처럼 정돈된 외모.
그것이 남학생들의 독점욕이나 정복욕을 묘하게 자극하는 것 같고, 하이임은 옛날부터 이상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본인은 인간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누구로부터의 제안도 모두 일축하고 있다.
「… … 흥미 없으니까」

언제나 그 한마디로 잘라버리니까, 상대로부터 하면 참은 것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 냉담한 태도를 무엇보다 재미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주위의 여자들이었다.
교실 곳곳에서 은근하게 싫은 음부가 내 귀에도 들려온다.
「뭐야 그 녀석, 남자를 망치고 있어」
「몹시 버려서, 진짜 지저분해진다」
자신들이 호의를 보이는 남학생까지도 하임에 열중하고, 어리석게 흔들린다.
그 질투와 증오가 언젠가 까맣고 두근거린 형태가 되어 하임을 향하게 되었다.
당연히, 그런 불만은 이윽고 음습한「괴롭힘」이라고 하는 폭주를 시작한다.
지난주 월요일, 하임의 나막신 상자에는 면도칼의 칼날이 몇장이나 담겨 있었다.
수요일에는, 교과서나 노트가 주석으로 찢어져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금요일에 이르러서는 책상 서랍에 부패한 생쓰레기가 담겨 있던 것이다.
누가 했는지 증거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능숙하게 방범 카메라의 사각을 노리고, 주위의 눈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해 행해진 범행.
보통이라면 인간불신에 빠져 울면서 잠들거나 학교를 쉬는 곳일 것이다.
하지만, 나의 쌍둥이의 언니는「보통」이라는 틀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존재였다.
「… … 이봐, 실롬」
지난 주 금요일 방과 후 거친 책상 앞에서 하임은 조용히 나를 불렀다.
「네, 뭐야 하임」
「… … 증거 모아, 번거로움」
「뭐, 그렇네요. 범인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 나는 노력했다」
「미안해요, 하임…
비열하고 음습한 왕따.
과연의 하임도 이번에는 울고 잠들까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날, 즉 이번 주 월요일에 일어난 악몽 같은 광경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하임은 아침 홈룸 앞, 교실 문을 조용히 닫으면 안에서 열쇠를 걸었다.
그리고, 교단의 옆에 두고 있던 금속제 파이프 의자를 무조작에 손에 잡은 것이다.
「하임? 무엇을…
나의 제지의 목소리조차 무시하고, 하임은 제일 전에 앉아 있던 출석 번호 1번의 남자의
곁에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 맥락도 없이 전력으로 파이프 의자를 그 남자의 안면에 두드렸다.
둔한 파쇄음과 격렬한 비명이 교실 안에 울려퍼진다.
「그래아아!?」
코골이 부서져 피를 뿜어내는 남자의 뇌천을, 하임은 한층 더 의자로 때려 머리를 두드렸다.
"……이류"
한 눈도 하지 않은 채, 하이임은 출석 번호 2번의 여자의 머리를 잡아 올린다.
그대로 주저없이 책상 카드에 안면을 두드렸다.
고툰이라는 무서운 소리와 함께 선혈이 하얀 프린트를 붉게 물들여 간다.
「헉…
「… …이지메의 묵인은 동죄」
범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교실 안에 있는 인간 전원을 위에서 차례로 두드리면 된다.
그것이, 하이임의 도출한 폭력적인 해답이었다.
의심은 모든 것을 처벌한다.
차례로 안면을 피 칠해져 가는 클래스메이트들의 참상으로 교실은 공황에 빠졌다.
"오이코라 빌어 먹을! 좋아하는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아!"
사람 혼잡을 깨고 머리카락을 화려하게 물들인 체격이 좋은 남자 두 사람이 위압적으로
하임으로 굉장히 거리를 채워 왔다.
여자 그룹의 주위에 평소부터 남자 상대에게도 음습한 왕따를 하고 있던 무리이다.

「오이코라 듣고 있는 것인가」
남자가 손을 내려고 다가온 순간, 하임은 가지고 있던 파이프 의자를 따뜻하게 미련 없이 버렸다.
그리고 그로부터 순식간에 꺼낸 스탄건을, 주저없이 선두의 남자의 목덜미에 밀어, 격렬한 방전음과 함께 감전시켰다.
「앗, 아구아아아!?」
「에?」
남자가 경련하고 무너지는 삐걱거리는 틈을 놓치지 않고, 하임은 또 한 남자의 머리 위를 향해 그리움에 숨기고 있던 특수 경봉을 강렬하게 내려간다.
「왓!?」
얽힌 남자는 양손을 머리 위로 내걸고 필사적으로 경봉의 타격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머리 위로부터의 공격은 단지 뿌린 먹이.
적의 의식이 머리 위에 그 순간에, 하이임은 풀 스윙으로 남자의 급소를 힘맡게 걷어올렸다.
"구하……!?"
가랑이를 누르고 기절하고, 그 자리에 둥근 남자 옆에서, 하이임은 방금전 버린 파이프 의자를 담담하게 픽업한다.
그리고 다운한 두쌍의 머리를, 교대로 3발씩 전력으로 때렸다.
갓! 갓! 라고 둔한 금속음이 울려, 정수리로부터 선혈이 기세 좋게 불어내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히, 히스테리다! 도와줘!」
「열어! 문을 열어!」
공포에 두려워하는 학생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문에 다가간 자의 얼굴을 하이임은 개조 에어건으로 쏘아냈다.
"갸아아아아아아아아"
5명, 6명과 피의 바다에 가라앉아 드디어 출석 번호 7번의 남자가 안면을 때려 쓰러졌을 때.
자신의 순서가 각시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주위 학생들이 보신을 위해 외쳤다.
「와, 알았다! 말한다! 말하기 때문에 그만해줘!」
「한 건 그 녀석들! 그 녀석들 4명이야!」
「그래! 그 4명이 나막신 상자에 칼을 넣거나 쓰레기를 넣거나 하고 있었어!」
"나 본 것! 그래서 부탁, 나를 때리지 마!"
자신이 피 칠해져서는 견디지 않으면 보신에 달린 무관한 학생들에 의해 담백히 진범인의 이름이 폭로되었다.
범인으로 지명된 4명의 여학생은 푸른 얼굴로 흔들리고 있다.
「… … 그래」
하임은 손에 든 피 젖은 파이프 의자를 끌어당기면서, 그 4명의 곁으로 걸어 다녔다.
「치, 다르다! 우리는 조금 괴롭힌 리턴에… … 히야아아아!?
변명조차 끝까지 말하지 않고, 하임은 용서 없이 파이프 의자를 내려갔다.
여러 번, 여러 번.
4명이 벌레의 숨이 되고, 안면의 원형을 남기지 않을 때까지, 하임의 기계적인 폭행은 계속되었다.
교실중이 피의 냄새와 절규에 휩싸인 가운데, 드디어 학년 주임이나 체육 교사들이 열쇠를 부수고 밟아 왔다.
당연히, 하임은 그대로 생활 지도실로 연행되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임에 열렬한 호의를 보이는 남학생들이 일치 단결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임씨는 포악한 음습한 왕따를 받고 있었다!」
「저것은 몸을 지키기 위한 과잉 방위… … 아니, 정당 방위다!」
「먼저 손을 낸 것은 그 4명의 여자다!」

남학생들의 강력한 증언과 학교 측이 '전대 미문의 대불상사'를 은폐하고 싶다는 보신의 생각이 훌륭하게 합치했다.
결과로서, 하이임의 행동은「극한 상태에서의 정당 방위」로서 처리되었다.
중상을 입은 4명의 여자와 무관한 몇명은 병원에 보내져, 하이임은「엄중주의」만으로「온편」에 교실에 돌아온 것이다.
「… … 후우」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프다.
내가 창 밖에서 시선을 교실 안으로 되돌리자, 방금 딸랑이와 문이 열리고 하임이 들어왔다.
고백을 거절하고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제복에는 얼룩 하나 없고,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걸을 때마다 주위의 학생들은 비크리와 몸을 꺾고, 튕긴 것처럼 길을 비웠다.
압도적인 폭력에 의해 실현된 왕따 없는 평화로운 클래스.
그것이 지금의 이 교실의 일상이었다.
"어서오세요, 하임"
「… … 지금, 실롬」
하임은 자신의 자리에 도착하자, 헐렁하게 책상에 팔꿈치를 붙였다.
「또 남자를 흔들어 왔네요」
"……응. 방해였으니까"
「변함없이 용서하지 않네요」
「……별로」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살짝 주위의 모습을 묻는다.
겉으로 서 하임을 거꾸로 하는 자는 이제 이 클래스에는 1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포에 의해 억압된 불만은 더 깊고 음습한 마그마가 되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굉장히 괴롭힘은 사라졌지만, 들려오는 음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봐, 봤어? 오늘도 또 남자를 흔들었다고」
「진짜, 무슨 생각이겠지」
「폭력여자의 주제에…
「선생님들도 그 녀석에게 달콤하지 않아?」
「절대로 이상해. 교두와 덱이 있다는 소문도 있고」
히소히소와 교제되는 은밀한 악의.
하임의 귀에도 절대로 들리고 있을 것인데, 그녀는 피크리와도 눈썹을 움직이지 않는다.
「… … 이봐, 실롬」
"네, 무엇입니까?"
「… … 시끄러운」
「그렇네요. 그렇지만, 더 이상의 폭력은 유석에 학교측도 망설일 수 없어요」
「… …알고 있다」
하임은 흥미롭게 창 밖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있어서, 주위의 인간의 질투나 굉장한 말은, 벌레의 깃털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알 수 있다.
이 이상한 정적과 왜곡된 평화는 언젠가 반드시 파탄한다.
공포로 지배된 교실과 사라지지 않는 살의를 숨긴 음문.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폭탄 위에 우리는 앉아있는 것이다.
「… … 허」
나는 무심코, 오늘 몇번째가 될지 모르는 큰 한숨을 쉬었다.
「…
"아니, 하임
「… … 이상해」

하임은 작게 목을 기울이면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눈을 감았다.
전혀, 노천기인 누나를 가지고 고생하는 것은 언제나 나다.
교실의 구석에서, 여자 그룹이 이쪽을 살기 서있는 눈으로 응시하고 있다.
그녀들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그 이상의 깊은 원수가 머물고 있었다.
혈액으로 칠한 해결책은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않았다.
단지 참극의 씨를 뿌려 놓은 것 뿐이다.
다음의 폭발이 일어났을 때, 과연 나는 하임을,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무거운 공기 속에서 예령의 차임이 교내에 허무하게 울려퍼졌다.
나는 눈썹을 손가락으로 밀면서 앞으로 시작되는 불온한 일상적인 생각을 느끼게 한다.
「...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 중얼거림은 교실의 서늘한 공기 속에 조용히 녹아갔다.
하임의 규칙적인 침식만이 내 옆에서 작게 들렸다.
아라시 앞의 평온함은 바로 이것일 것이다.
다음 한 손이 누구에게서 칠 수 있는지, 나는 경계를 풀 수 없었다.
교실의 온도가 단번에 내려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음구의 목소리는 차임이 울려도 완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저주처럼, 이 방에 계속 체류하고 있다.
하임이 다음에 파이프 의자를 손에 들지 않도록, 나는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쌍둥이의 동생으로서의 고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았다.
교실 문이 열리고 담임 교사가 들어왔다.
교사의 얼굴도 또 어딘가 겁먹은 듯 끌고 있다.
학생도, 교사도, 모두가 하임이라고 하는 1명의 소녀의 안색을 엿보이고 있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학교, 비정상적인 수업, 비정상적인 언니.
그 한가운데서, 나는 오늘도 한숨을 계속한다.
점심시간이 되면, 또 다음의 남학생이 하임을 호출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여자들의 질투가 사 쌓아 가는 것이다.
이 악순환을 차단하는 술을, 나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하이임 옆에서 그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 ...실롬, 시끄러운」
「에? 나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 ... 마음의 목소리가 시끄럽다」
「...
우리들은 짧게 말을 나누자 교단에 서는 교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수업이 시작된다.
하지만, 누구 1명으로서 수업 내용에 등 집중하고 있지 않았다.
모두가 단지 무사히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란다.
그런 왜곡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하임은 다시 눈꺼풀을 닫고 조용한 잠에 붙었다.
그녀의 예쁜 옆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사고를 둘러보게 한다.
내가 그녀를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녀로부터 주위를 지켜야 할 것인가.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 학교에서의 나날이 평온과는 거리가 먼 것만은 확정하고 있다.
교과서의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조용히 돌아온 교실에 울렸다.
누군가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린 것 같았다.
그것은 요전날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고 트라우마를 안은 학생의 것이다.
아무도 하임을 비난할 수 없는 환경이 더욱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었다.
이것이 하임이 만든 '평화'의 모습이었다.
완벽하고, 너무 파멸적인 평화.

나는 펜의 머리를 둥글게 울리고, 수중의 노트에 무의미한 선을 그었다.
칠판을 향해 문자를 쓰는 교사의 손이 희미하게 떨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어른의 권위조차 부서져 버린 언니의 존재감.
그것은 자랑스럽고 동시에 무서웠다.
창 밖에서는 가을의 바람이 나무의 잎을 흔들고 있다.
하늘은 어디까지나 파랗게 맑아 건너고 있었다.
이 교실 안의 혼돈과는 대조적인, 너무 아름다운 푸른 하늘.
「……하아」
오늘 몇번째의 어필 같은 한식.
하임은 피크리와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녀에게 있어서의 세계는, 분명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일 것이다.
선악의 기준도, 손익의 계정도, 모두가 그녀 독자적인 룰로 움직이고 있다.
거기에 말려들어 있는 주위는 참은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녀의 유일한 아군이 있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쌍둥이로 태어난 이상,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각오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무리 사이의 휴식.
나는 노트를 열고 교사의 판서를 기계적으로 찍기 시작했다.
주위의 시선이 아프다.
하임의 동생인 나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경멸이 섞인 것 같은 시선이 향하고 있다.
익숙하지는 않지만 기분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도 나는, 노력해 평연을 가장한다.
동요를 보이면 녀석들은 쏟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임이 폭력으로 쌓은 성을 내가 지성으로 유지한다.
묘한 역할 분담이 완성되고 있었다.
수업 종료를 알리는 차임이 울린다.
교사는 도망치도록 교탁을 떠나 교실을 나갔다.
학생들도 일제히 긴장을 풀고 덜컹거리며 자리를 잡는다.
당연히 대부분의 동급생은 하임의 자리 근처를 지나려고 하지 않는다.
다가오는 사람은 하임의 팬이나 신자뿐이다.
「… …하임, 일어나 주세요. 쉬는 시간이에요」
"…응……후……"
눈을 문지르면서 일어나는 누나를 바라보고 나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Phase.1] 왜곡된 이굴과 작은 자존심

방과후 조용히 돌아온 복도, 화장실로 얼굴을 씻은 나는 수건으로 수분을 닦으면서 혼자 한숨을 쉬고 있었다.
하임은 선생님에게 불려 진로 지도실로 향하고 있어, 나는 혼자 교실로 돌아가는 도중이었던 것이다.
조용한 복도에, 돈까스와 복수의 상신이 바닥을 울리는 발소리가 다가온다.
다리를 멈추자 눈앞에 4명의 여학생이 멈췄다.
그녀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적의와 불쾌한 색이 떠오르고 있다.

중심에 서는 아코, 그 옆을 굳히는 이나, 우리에, 그리고 1번 뒤에서 팔을 짜는 에코다.
「… … 뭔가용입니까」
내가 조용히 물으면 리더 격의 아들이 머리를 들으면서 코로 웃도록1걷기 시작했다.
「저기-, 실롬군? 조금 이야기가 있는데 좋을까」
「… … 나에게 이야기, 인가」
"그래. 너의 그 언니에 대해"
아코의 말에 돋보이듯 이나가 눈썹을 비틀어 불만을 드러낸다.
「하임 씨, 대단한 클래스의 분위기 부치코와시지만. 알고 있어?」
"모두 겁먹고 제대로 학교생활 보낼 수 없어? 너무 이상하다"
우리에가 동의하는 것처럼 크게 수긍하고 멸시하는 시선을 나를 향해 온다.
「폭력으로 전원을 위협해, 선생님들도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실롬 군으로부터 언니에게 말해줘. 모두에게 제대로 사과하자"
아아가 팔을 짜고 당연한 요구라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시선으로 밝혀냈다.
「동생의 시롬군으로부터, 제대로 쫓아요. 더 이상 클래스를 거칠지 말고」
4명으로부터의 압박감이 있는 시선이, 혼자 서 있는 나의 전신에 찔린다.
솔직히, 체격차적으로도 나에게는 그녀들을 힘으로 물러나는 위압감은 없다.
나도 하임도 신장은 150cm 정도 밖에 없다(하임이 1cm 높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동년대의 여학생과 나란히도 차이가 없는 체격으로, 몸집이 작은 부류에 들어간다.
남자로서의 골격도 아직 미발달로, 이렇게 4명의 여자에 둘러싸여 있으면 시각적인
위압감조차 기억한다.
하지만 내 안에서 평소와 차가운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 … 사과한다, 입니까」
「그래. 너도 몸 안이라면 책임감이야」
「불합리네요」
나의 조용한 반론에 아코의 눈썹이 튀어 올랐다.
「…
「순서가 반대입니다. 나쁜 것은, 최초로 하임에 음습한 왕따를 한 그쪽이지요」
확실히 입으로 하면, 에코가 뒤에서 불쾌하게 목소리를 거칠게 했다.
"하아!? 너에게 말해 버린 거야? 우리는 상관 없잖아!"
"관계없어?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나는 척추를 제대로 뻗어 4명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나막신 상자에 면도기를 넣고 교과서를 찢어 책상에 쓰레기를 넣었다.
「그건…
이나가 무심코 진심을 흘리며 곧바로 입을 물었지만, 이미 늦었다.
"건방지기 때문에 폭력을 흔들고 괴롭히는 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임의 방법이
과격했던 것은 인정합니다만, 원래를 바로잡으면 당신들의 악의가 일으킨 것입니다.
자신들이 뿌린 종인데, 아픈 눈을 보면 피해자면을 해서 사과를 요구하지 않아,
단번에 권설하면 아아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어 간다.
「당신이야…
"음색을 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사실!? 그 녀석이 하는 일은 그저 폭력 행위겠지!」
「그럼, 당신들이 뒤에서 하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음습한 왕따가 아닌가요」
1걸음도 당기지 않는 나의 자세에 우리에가 위협하도록 몸을 내밀어왔다.
「건방진 말이 없어! 너 같은 꼬마가 있어!」
치비코, 라는 말이 내 가슴에 찌쿠리와 박힌다.
확실히 나는 키가 낮고, 하임보다 1cm이지만 작고(신경쓰고 있다), 그녀들과 비교해도 선이
가는 체격이다.

혼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는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일 것이다.
나에게 손을 내려고 하면, 그녀들 4명이라면 쉽게 나를 붙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순간, 뇌리에『하임』의 존재가 떠올랐다.
여기서 "나에게 손을 내면 하임이 침묵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면, 그녀들은 겁먹고 도망칠지도 모른다.
하임의 그 압도적인 폭력을 배경으로 칠라 붙이면 한 번에 해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말은 입이 찢어도 말할 수 없었다.
나에게도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있다.
아무리 몸집이 작고 의지하지 않아도 언니의 그늘에 숨어 위협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비참한 흉내만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자신 1명의 발로 서서 자신 1명의 말로 이 눈앞의 적과 대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체격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의견으로서 당신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나로부터 하임에게 사과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
아자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위협하라고 말했다.
"언니가 없을 때 우리를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나를 때린다면, 부디"
나는 곧바로 아코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에 당신들도 하임과 같은 '가해자'가 됩니다. 증거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숨어 괴롭히는 비겁한 자로부터 진정한 폭행범에 강격하네요"
「웃……! 이…
아코는 주먹을 쥐고, 지금도 나에게 붙잡을 뿐 몸을 떨게 했다.
우에에도 이나도, 분노와 굴욕으로 얼굴을 왜곡하고 있다.
나의 신체는 공포로 조금 강장하고 있었지만, 시선만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았다.
언니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 1명의 힘으로 서 있다.
그것이 내가 자신에게 부과한 흔들리지 않는 의지였다.
긴장감이 극한까지 높아지고 침묵이 복도를 지배한다.
나와 아코 사이에서 불꽃이 흩어지는 듯한 시선의 밀어남이 이어졌다.
「… … 치」
침묵을 깨뜨린 것은 아아의 깊고 격렬한 혀 치기였다.
그녀는 흘러넘치는 살의를 담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면 뱉어내라고 말했다.
「최악. 언제나 이 언제나 미치고 있어」
「…
이나가 토해내도록 동조한다.
「기분 나쁘다. 관련되는 것만으로도 벌레가 달릴 거야」
우리에도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가자. 이런 놈에게 말해도 쓸데 없어」
아코는 발뒤꿈치를 돌려, 거친 발소리를 세워 걸어 나갔다.
나머지 3명도, 저에게 저주 같은 시선을 받게 하면서, 그녀의 뒤를 쫓아간다.
「… … 기억할 때가.
마지막으로 에코가 버려 대사를 남기고, 4명의 모습은 복도의 모퉁이로 사라져 갔다.
정적이 다시 복도로 돌아온다.
「… … 후우」
그녀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하고 나는 벽에 등을 맡기고 깊게 숨을 내쉰다.
긴장의 실이 끊어져 무릎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았다.

'우리 무조건한 강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녀들이 이성을 잃고 나에게 덮쳐왔다면, 무상으로는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임의 이름을 내고 도망치지 않았던 것만은, 자신 속에서 작은 자랑이었다.
창 밖을 보면 석양이 교사를 새빨갛게 물들고 있다.
피처럼 붉은 빛이 잔잔한 복도에 길고 소름 끼치는 그림자를 떨어뜨렸다.
말할 수 없는 어두운 분위기가, 나의 가슴을 무겁게 밀어붙인다.
아무것도 해결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내가 그녀들의 불만을 부추겨 불에 기름을 부어 버렸을지도 모른다.
불만과 증오는 사라지는 커녕 더 깊게 지하에 숨어 흉악한 형태로 변모하려고 하고 있다.
이 학교의 공기는 이미 완전히 썩었다.
「… … 싫은 전개군요」
나는 혼자서, 눈썹을 잡았다.
교실로 돌아가야 하는데 발이 무겁다.
나의 앞에 막혔던 그 4명은, 다음은 무엇을 해 오는 것일 것이다.
하임에 직접 손을 내는 도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래서, 표적이 되는 것은… … 나야.
자신이 휘말릴 위험성을 이해하면서도 신기하고 후회하지 않았다.
하임의 동생으로서, 그리고 1명의 남자로서, 양보할 수 없는 일선은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 …실롬?」
갑자기, 익숙한 로텐션인 목소리가 배후에서 울렸다.
뒤돌아보면, 진로 지도실에서 돌아온 하임이, 조용히 거기에 서 있었다.
「하임. 돌아가세요, 빨랐네요」
「… … 응. 이야기, 곧 끝났으니까」
하임은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본다.
"……뭔가, 있었어?"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노력하고 태연한 미소를 짓고 목을 옆으로 흔들었다.
"그냥 조금 피로가 나왔을 뿐입니다."
「… … 그래」
하임은 깊은 추격을 하지 않고 내 옆에 나란히 걸기 시작했다.
그녀의 신장은 나보다 1cm 높다.
단 1cm이지만, 나란히 걸으면 그 미소한 차이가 조금만 회개했다.
그녀의 옆모습은 여전히 무표정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읽을 수 없다.
내가 여자들에게 얽혀 있던 것 등, 그녀는 알 수 없다.
그걸로 좋다고 생각한다.
나의 싸움은 나만의 것이다.
두 사람으로 나란히 조용한 복도를 진행한다.
엇갈리는 다른 클래스의 하이임의 팬이 아닌 학생들은, 이쪽을 보면서 푸르게 해 벽에 몸을 들였다.
마치 맹수의 길을 비우는 것처럼.
한편으로 일부 하이임의 팬들만은 열렬한 러브콜을 던져 온다.
이 이상한 광경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다.
「… … 이봐, 실롬」
"뭐야, 하임"
「… … 배고프다」
「하아…
"……응"
그런 다른 사랑도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교실로 돌아와 가방을 잡았다.

교실에 남아 있던 학생들의 시선이 아플 정도로 찔린다.
아들들 4명도 교실 구석에 있었지만, 나와 눈이 맞으면 자극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얼굴을 돌렸다.
그녀들의 눈동자의 안쪽에 불타는 원념의 나머지 불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다음의 충돌은 반드시 그렇게 멀지 않다.
학교를 나와, 일몰에 물드는 통학로를 둘로 걷는다.
그림자가 길게 뻗어 어디까지나 계속되고 있었다.
「… … 오늘의 밥, 뭐야?」
"뭐가 좋습니까?"
"……오므라이스. 소스는 쇠고기 스튜가 좋다"
「알았어요. 계란, 남아 있었을까…
일상을 꾸미면서도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클래스의 분위기는 이제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불발탄을 안은 채, 내일도 또 이 학교에 다녀야 한다.
어두운 예감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하이임의 옆을 계속 걷는다.
자신이 작게 의지하지 않는 존재라고 해도, 꺾일 수는 없다.
붙잡은 주먹에 힘을 담으면서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바람이 뿜어져, 거리의 낙엽을 카사카사와 울린다.
가을의 깊어짐과 함께 우리 주위의 세계도 또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다.
말의 칼날과 물리적인 폭력이 교차하는 이 학교에서, 내가 유지하는 자존심은 어디까지 통용할 것이다.
대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을 안고, 나는 언니의 조금 앞을 가는 그림자를 쫓아 걸었다.
석양이 완전히 가라앉고, 가로등이 포츠포츠와 켜지기 시작한다.
집까지의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 …실롬, 걷기의 이른」
「아, 죄송합니다.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
「… … 흠」
하임의 보조에 맞추어 속도를 떨어뜨린다.
1cm의 신장차가, 또 시야의 끝에서 깜빡였다.
빨리 키가 뻗으면 좋지만, 무늬에도 없어 생각한다.
'최초로 올려다보는 입장에서, 내려다보는 입장이 되고 싶었다.
그것은 남자로서의 겸손한 의지였다.
집에 도착하자 열쇠를 열고 조용한 현관에 들어갔다.
「지금 지금입니다」
「… … 지금」
아무도 없는 집안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외롭게 울린다.
여기만이 그 왜곡된 학교에서 격리된 유일한 성역이었다.
가방을 두고, 키친을 향해 앞치마를 몸에 익힌다.
냉장고를 열면 계란은 아슬아슬하게 2인분 남아 있었다.
"하임, 오므라이스 만들 수 있어요"
「… … 했다」
거실 소파에 깊게 가라앉는 하임을 보면서 나는 프라이팬을 꺼냈다.
요리를 하고 있는 동안만은, 불필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끝난다.
양파를 새기는 부엌칼의 소리가 톤톤과 템포 잘 울린다.
아들들의 버려진 대사가 뇌리로 리프레인하고 있었다.
'기억할 때야. 이대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
그녀들이 다음에 걸어 온다면, 어떤 수단일 것이다.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 좀 더 정신적이고, 음습한 무엇인가.
나를 타겟으로 해, 하이임을 흔들려고 할지도 모른다.
혹은 학교 전체를 말려들었던 큰 트러블인가.
어떤 손으로 오려고, 나는 혼자 받아들이는 각오를 굳힌다.
프라이팬에서 케첩 라이스를 볶는 고소한 냄새가 쏟아진다.
「… … 좋은 냄새」
하임이 어느새 주방 입구까지 와서 잠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응」
얌전히 돌아가는 누나의 등을 배웅하면서, 나는 얇게 구운 계란을 만들기 시작했다.
왜곡된 일상 속에서 이 평온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는 누구에게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나의 방식으로, 이 작은 일상을 지켜내 보인다.
오므라이스를 한층 더 담아내면서, 나는 굳게 결의를 새롭게 한 것이었다.

[Phase.2] 굴욕의 금차기와 오줌 실금

방과후의 고요함이 감도는 교사에서, 나는 가방을 안고 1층의 남자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다.
하임은 선생님께 부탁받은 프린트 보습 작업으로 아직 교실에 남아 있다.
용을 더하고 나서 돌아가려고 뿔을 구부린 순간, 배후로부터 갑자기 격렬한 충격이 허리를 덮쳤다.
「그……!?」
원래 몸집이 작고 몸이 가벼운 저는 저항하는 얼마 없이 앞 뒤에 바닥에 두드려졌다.
아픈 무릎을 누르고 일어서려고 한 순간, 시야가 급격히 반전하고 강렬한 힘으로 팔을 잡는다.
"잠깐 와줘, 실롬군"
「무엇을 하는 거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채 끌어당긴 것은 희미한 여자 화장실 속이었다.
바탄과 무거운 소리를 내고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에 갇힌다.
눈앞에 서 막힌 것은 어제의 4명—아코, 이나, 우리에, 그리고 에코였다.
아코의 손에는 깨끗이 접힌 여자용 제복의 스커트와 세일러복이 잡혀 있다.
"이것을 입어라. 너와 하임은 쌍둥이니까 얼굴도 똑같지?"
「…
「너에게 이것을 입게 해, 바닥에 기어 다니면서 밑바닥 앉게 하는 거야」
이나가 싫은 웃음을 띄워 손에 든 마스호(나는 옛날부터 스마트폰을 마스호라고 부르고 있다)의 카메라를 나를 향해 내걸었다.
「하임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있는 것 같은 동영상을 찍고, 넷에 뿌려 버려 줘」
"그래. 그 여자의 자존심을 완벽하게 짓밟아 줄거야. 자, 빨리 벗지 마!"
우리에가 내 어깨를 잡고 옷을 벗겨내려고 손을 뻗어온다.
도망치지 않는 여자 화장실의 개인실 앞, 나는 차가운 땀을 흘리면서도 곧바로 그녀들을 노려보았다.
「거절합니다」
'연연한 거절의 말에 4명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격고한 붉은 빛이 쏟아진다.
「당신이야! 자신이 어떤 입장인지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비겁하고 비참한 날조 공작에 협력할 생각은 없습니다」
「건방진거야, 이 치빗코가...
아아가 반약과 같은 형상으로 노명을 흩뜨리지만, 나는 차갑게 말을 돌려주었다.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낭비입니다. 그런 모방을 한 곳에서, 당신들의 어리석음이
비참함으로 바뀔 뿐――"

도보!!

말하는 것보다 빨리 물이 들어간 봉투를 두드린 것 같은 소리가 울려, 내 가랑이를 아래에서 위로 뚫는 이상한 충격이 달렸다.
"에……?"
뭐가 일어났는지, 뇌의 처리가 따라잡지 않는다.
아코가 발등으로, 내 가랑이를 전력으로 걷어올린 것이다.
최초의 쉼표 몇 초, 통증은 전혀 오지 않았다.
다만, 하복부의 깊숙하고, 인체의 근간을 지지하는 중요한 부위에「뭔가 치명적인 파괴」가 더해진 감촉만이 있었다.
직후 지옥과 같은 격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으……!?!?!?」
목소리가 되지 않는 비명이 기관에 막히고 숨이 완전히 멈춘다.
지금까지 살아 와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차원이 다른 격렬한 통증의 물결.
그것은 단순히 피부나 근육이 아프는 것이 아니라 신경의 뭉치가 직접 구워져 내장 전체가 잡히는 듯한 굉장한 파괴열이었다.
배의 바닥에서 구역질이 메스꺼워져 솟아오르고, 시야가 순식간에 새하얗게 물든다.
뇌가 거절반응을 일으켜 전신의 전세포가 미친 듯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다.
서있을 수 없어, 나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쓰러졌다.
「아구……아…
남자로서의 프라이드도, 냉정한 사고도, 모두가 한순간에 날아갔다.
너무 격통에 신체가 마음대로 둥글게 되고, 새우처럼 신체를 구부려 바닥을 가볍게 돌린다.
양손으로 필사적으로 가랑이를 안고, 압박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통증을 완화하려고 하지만, 손가락 끝이 닿는 희미한 진동조차 절망적인 통증의 플래시가 되어 두도를 뚫는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수치도 외문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좋아졌다.
눈으로부터는 엉망진창과 큰 눈물이 흘러넘치고, 입으로부터는 제어가 효과가 없는 눈물이 늘어져 바닥을 더럽힌다.
콧물조차 흘러넘치면서 나는 단지 "우굿, 아아아"라고 짐승 같은 보기 흉한 소리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
가랑이의 안쪽에서, 구슬이 파열해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공포와, 하복부를 구워지는 것 같은 열기가 끊임없이 습격된다.
호흡을 할 때마다 복압이 걸려 그 때마다 격통이 튀어 올라 의식이 날 것 같다.
태어나 처음 맛보는 급소에의 타격은, 나의 이성을 완벽하게 파괴해 버리고 있었다.
「아하하하하! 봤다!? 1발로 쓰러져 버렸지만!
「굉장해! 돈 차기라고 정말로 효과가 있어!」
「왓, 당길거야! 涎과 콧물 늘어져 진짜로 더럽지만!」
머리 위에서 들리는 여자들의 조롱조차 먼 세계의 사건처럼 흐리게 들린다.
통증을 견디려고 전신의 근육에 극한의 힘이 들어간 그 순간이었다.
가랑이의 안쪽, 하복부의 긴장이 단번에 한계를 맞이한다.
(에……으, 거짓말……?)
원래 화장실에 가려고 방광에 한계까지 소변이 모여 있었던 것이다.

격통에 의한 반사적인 괄약근의 이완과 하복부에 대한 강렬한 압박이 겹쳐져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배뇨 스위치가 들어가 버린다.
가랑이가 급격히 뜨거워지고, 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누르고 있던 나의 양손의 틈새로부터, 따뜻한 액체가 넘쳐났다.
　지근히 따뜻한 물과 같은 따뜻함이 바지와 속옷을 적시고, 바닥에 떨어지고 간다.
조보 조보와 조용한 화장실 안에 절망적인 물소리가 울려퍼졌다.
"……에, 기다려. 이녀석, 혹시……"
"거짓말이지!? 오줌 누설 잖아!"
"캐하하하하하! 야바이, 슈퍼 우케 르지만! 누설했어 이녀석!"
4명의 광희로 가득한 폭소가 여자 화장실 속에 굳건하게 울려퍼진다.
「찍어! 빨리 동영상 찍어!!」
"확실히 찍고 있어! 하임의 동생, 가랑이 걷어차고 울면서 실금한다고 타이틀로 흘려 버리자!"
「그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하려고 했지만, 입에서 새는 것은 涎의 섞인 무고한 헐떡임만이었다.
가랑이를 누르는 손은 자신의 오줌으로 젖어, 차갑고 불쾌한 감각이 전신을 감싼다.
렌즈가 내 무고한 모습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가온다.
카샤 카샤와 울리는 셔터 소리와 동영상 촬영의 빨간 램프.
눈물과 콧물로 구샤구샤가 된 얼굴, 가랑이를 적시고 쓰러져 엎드리는 무고한 자세.
남자로서의 프라이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모두가 이 차가운 여자 화장실의 바닥 위에서 부서져 부서졌다.
「아하하! 하임에게 보여주고 싶어! 너의 자랑의 동생, 오줌 누설하고 울고 있어!」
"이것 확산되면 더 이상 학교 올 수 없어!"
"자마아미로! 위장했던 보상이야!"
그녀들의 말이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내 마음에 찔린다.
통증이 당기는 기색은 일절 없고, 오히려 하복부 전체의 둔통이 깊고 무겁게 침몰해 간다.
몸이 떨리고 움직이지 않는다.
난간 버섯을 잡는 기력조차 잃어버려, 나는 자신의 암모니아의 바다 속에서 단지 떨리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다.
「……아……으……」
자신이 이렇게 약하고 무력한 존재였다고 생각된다.
하임의 그림자에 숨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맞서려고 한 결과가 이 참상이다.
프라이드를 지키려고 한 결과,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형태로 그것을 빼앗겨 버렸다.
절망과 격통과 자기 혐오가 나를 괴롭힌다.
4명은 내 추태를 마음껏 촬영하자 만족스럽게 얼굴을 마주쳤다.
"이제 충분하잖아. 이런 더러운 놈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
「진짜, 냄새가 났다. 가자」
「바이바이, 실롬군. 내일부터의 학교, 기대하고 있어-!」
가챠리와 열쇠가 열리고 4명의 즐거운 발소리가 멀어져 간다.
정적이 다시 여자 화장실을 지배했다.
남겨진 것은, 피의 기분이 든 얼굴로 둥글게 되어, 자신의 소변 투성이가 되어 떨리는 나뿐이었다.
「……읏…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나는 마침내 소리를 내며 울었다.
가랑이 사이의 격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체온을 빼앗는 젖은 옷이 비참함을 몇 배나 증폭시킨다.
왜 이런 일이 되어 버렸을 것이다.

나는 단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반론했을 뿐인데.
자신의 정의를 관철하려고 했을 뿐인데.
현실은 너무 잔인하고, 용서 없이 나를 두드렸다.
바닥에 붙은 자신의 손이 떨리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일어나는 것조차 할 수 없고, 나는 단지 차가운 타일에 얼굴을 밀어붙였다.
동영상이 확산되면 내 학교 생활은 완전히 끝난다.
그 대신, 하임에게 얼마나 폐와 굴욕이 걸릴지 모른다.
내가 발 잡아당긴 것이다.
내가 약했기 때문에.
억울함과 한심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포타포타와 눈물이 바닥의 웅덩이에 떨어지고 파문을 만든다.
가랑이 사이의 통증을 견디며 다시 몸을 작게 둥글게.
하복부가 무겁고 격렬하게 얕고 파도가 밀려날 때마다 숨이 멈춘다.
「... ... 도움..... 하고...
사라질 것 같은 목소리로 도착할 수 없는 도움을 불러 버린다.
그런 자신이 한참 비참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방과후의 교사는 조용히 돌아와, 내 울음만이 허무하게 울리고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통증이 조금만 당겨 대신 바닥 없는 허무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옷에 묻은 냄새와 얼룩이 내가 저지른 실패의 증거로 남아있다.
나는 천천히 떨리는 신체를 일으키려고 했다.
하지만 하복부로 달리는 격렬한 통증에 거절당하고 다시 무너져 떨어진다.
「아...
움직이는 것조차 용서되지 않는다.
이 굴욕적인 장소에서, 나는 단지 참담하게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황혼이 여자 화장실의 소창에서 꽂아 실내를 소름 끼치는 붉은 보라색으로 물들여 간다.
그림자가 늘어나, 나의 무고한 모습을 삼키고 간다.
머리 속에서, 아들들의 고웃음이 몇번이나 몇번이나 리프레인하고 있었다.
'가랑이 걷어차고 울면서 실금한다'
그 말이, 내 뇌리에 구워져 떠나지 않는다.
나의 존엄은 완전히 죽은 것이다.
하임의 동생으로 자랑스러워하려던 소년은 여기에는 더 이상 없다.
단지, 불쌍하고 비참한 패배자만이 구르고 있다.
이를 먹고, 피가 나올 정도로 입술을 씹었다.
통증과 굴욕 속에서 내 마음 속에 검게 짙은 감정이 태어나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고 포기도 아니다.
단지 오로지 깊은 칠흑의 절망과 원념이었다.
자신을 이런 눈에 띄게 한 세계에 대한 차가운 살의에 가까운 무엇인가.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것을 부딪히는 힘조차 남아 있지 않다.
단지 바닥을 기어, 불쾌한 젖어 젖은 느낌에 견딜 뿐.
눈물로 시야가 흐려진다.
흐릿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손이 비참하게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하.....읏...
얕은 호흡을 반복하고 조금씩 통증이 당길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 화장실 바닥에서 흘린 오줌 눈물의 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는 것일까.

하임일까.
아니, 부탁이니까 오지 마라.
이런 무잔하고 추한 모습을 가장 보이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숨을 죽이고 기색을 지우려고 작아졌다.
하지만 발소리는 곧바로 여자 화장실 앞으로 다가온다.
코튼, 코튼과 조용하고 차갑고 규칙적인 발소리.
그 발소리가 누구인지, 나에게는 싫다는 만큼 알게 되어 버렸다.
절망이, 다시 나의 전신을 달려간다.
문 앞에 발소리가 멈췄다.
정적이 방문한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렸다.
기와 싫은 소리를 내고, 여자 화장실의 문이 열린다.
석양의 붉은 검은 광선이 실내에 꽂혀 내 더러운 신체를 선명하게 비추었다.
거기에 서 있던 것은.
「… …실롬?」
감정의 깎아 떨어진, 평소의 로텐션인 목소리.
하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실내를 내려다보고, 바닥에 쓰러지는 나와, 퍼진 액체, 그리고 잡혔을 때에 흩어진 제복의 버튼을 눈에 띄었다.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바닥에 얼굴을 밀어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새는 얕은 목소리와 떨리는 신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 … 오지 말고…
겨우 나온 목소리는 굉장히 쫓겨서 한심하지 않았다.
「… … 보지 말고…
하임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1보를 내디뎠다.
발바닥이 젖은 바닥을 밟는 작은 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나의 바로 옆까지 오면 천천히 굴복했다.
「… …실롬」
그녀의 손이 내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만졌다.
그 따스함이, 지금의 나에게는 아파할 정도로 괴로웠다.
"……WHO?"
짧고, 평탄한 질문.
하지만 그 목소리의 바닥에는 지금까지 들은 적도 없는 냉혹한 온도가 숨겨져 있었다.
「… … 말하지 않아… … 괜찮아…
「… …누구에게, 당했어」
하임은 내 말을 듣지 않고 한 번 더 물었다.
그녀의 눈이 내 가랑이의 얼룩을 본다.
하임의 표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로부터 쏟아지는 기분이, 주위의 공기를 물리적으로 얼어붙게 하는 것처럼 날카로워져 간다.
「… …실롬」
"……네……"
「…… 세울까?」
「……무리……입니다……격통으로…
「… … 그래」
하임은 일어나자, 자신이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고, 내 허리에 부드럽게 걸어 주었다.
「… …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짧게 그렇게 말하면, 발뒤꿈치를 돌려주었다.
「하임… … 어, 뭐를…
「… … 청소」
하임의 등이 여자 화장실을 나간다.
그 발소리는 방금전과는 달리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고 확실한 살의를 맡고 있었다.

[Phase.3] 새하얀 바지 둥근

집에 돌아간 후에도, 나는 자신이 누구에게 습격당했는지를 하임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엉망으로 찢어진 나에게 남겨진 마지막 프라이드였다.
여자 상대에게 가랑이를 차고 울고 외치고, 실금까지 한 무고한 실태.
그것을 언니에게 울고 말하는 등 내 자존심이 절대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열심히 입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임도 그 이상은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밤, 자신의 방의 침대안에 잠입해도, 미잠도 조차 용서되지 않는다.
눈을 감을 때마다 주간의 압도적인 굴욕이 선명한 영상이 되어 뇌리에 되살아난다.
태어나서 처음 맛본, 그 돈 차기의 무서운 아픔.
하복부를 통째로 구워지는 것 같은 처절한 격통과, 내장을 파괴되는 것 같은 악심.
보다에 의해, 동년대의 여자에게 가랑이를 걷어차 쓰러져 쓰러뜨렸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견디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포와 아픔이 너무 무의식적으로 오줌을 흘려버린 것.
젖은 속옷의 차가움과, 4명의 고웃음이, 귀의 안쪽에서 언제까지나 리프레인하고 있었다.
「…
시트를 강하게 씹으면서 나는 밤 어둠 속에서 몰래 눈물을 흘렸다.
내일 학교에 가면, 그 동영상이 전교 학생에게 확산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눈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공포로 신체의 떨림이 멈추지 않는 채, 나는 한때의 잠도 얻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등교해 보니, 우려하고 있던 것 같은 소란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학교 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확산된 모습도 볼 수 없다.
하임이 날뛰고 그 4명을 피축제에 올렸다는 것도 없었다.
하임은 여전히 자석에서 희미하게 창 밖을 바라보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안도한 나였지만, 곧 그것이 달콤한 생각이었다고 알게 된다.
교실 구석에서 아코, 이나, 우리에, 에코의 4명이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입가에 손을 대고, 으쓱하면 싫은 웃음을 띄워 나를 비웃고 있다.
동영상을 학교중에 뿌려 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망칠 곳이 없는 완구로서 수중에서 농담할 생각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자리에 가방을 두려고 서랍 속에 손을 뻗는다.
손가락 끝에 작고 접히는 희귀 메모 용지를 만졌다.
끌어내고 열면, 거기에는 짧은 문자가 뛰어나고 있었다.
『방과 후, 어제의 여자 화장실에 출두하라. 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전원에게 흘린다』
차가운 땀이 등을 전해 심장이 조종처럼 울린다.
도망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의 존엄을 인질로 잡힌 악몽의 지옥은 아직 막 시작됐다.
하루 종일 수업이 마치 고문처럼 오랫동안 느껴졌다.

노트를 취하는 손은 떨리고, 교사의 목소리 등 일절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때때로 되돌아보면 4명의 서늘한 시선이 내 육체를 깎아가는 것 같다.
하임에게 도움을 구하는 선택사항은 내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에게 알려지면, 확실히 전회의 폭행 이상의 처참한 피의 참극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 자신도, 누나의 위광을 빌려서밖에 살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완전히 타락해 버린다.
이건 내 자신의 문제이며 내가 혼자서 짊어져야 하는 벌인 것이다.
이윽고, 용서 없이 방과후를 말하는 끝의 차임이 교내에 울렸다.
「… …실롬, 먼저 돌아가?」
짐을 정리한 하임이, 조용한 목소리로 나에게 물어온다.
「… … 아니, 오늘은 조금 위원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끌리는 얼굴을 엎드려서 거짓말의 변명을 말했다.
「하임은 먼저 돌아와주세요」
「… … 그래. 그럼,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임은 의심하는 모습도 없고, 천천히 교실을 나갔다.
그녀의 등이 멀어지는 것을 배웅하면서, 나는 깊게 숨을 내쉰다.
이걸로 좋다.
그녀를 말려들지 말라.
이건, 나 혼자만의 비밀이며, 고통이니까.
사람 그림자가 드문드문 방과후의 교사를, 나는 마치 처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걸었다.
1걸음 밟을 때마다, 어제의 가랑이의 통증이 되살아나는 착각에 습격당한다.
1층 안쪽에 있는, 그 어두운 여자 화장실의 문 앞에 도착했다.
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자 하면 손가락 끝이 미끄러져서 잘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호흡을 정돈하고 의를 결코 문을 눌러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에는 이미, 그 4명이 팔을 짜서 기다리고 있었다.
패턴과 뒤에서 문이 닫힌다.
「도망치지 않고 왔어. 어려워, 실롬군」
아코가 왜곡된 미소를 띄우고, 내 앞으로 걸어온다.
「동영상, 확산되고 싶지 않은 건가? 그렇게 무고한 모습, 모두가 볼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없어」
「… … 뭐야, 모방입니까」
ㅜ 나는 썩은 목소리로 어떻게든 물었다.
「무슨 흉내는 건가?
우리에가 손에 든 마스호의 화면을 깜박이게 한다.
"당신의 언니 탓에, 우리가 얼마나 어깨 몸의 좁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 동생의 너가 충분히 죄를 보상하지 말라"
이나가 벽에 놓여 있던 청소용 양동이를 걷어차며 금속음을 울렸다.
「자, 어제의 계속을 할까」
에코가 바닥에 여학생의 제복을 던진다.
"그것을 입고, 우리 신발을 핥으면서 사과해."
「… … 끝입니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항하자 아코의 표정이 한순간에 표변했다.
「또 상태를 타고…
아코는 머리카락을 넣지 않고 내 가슴을 강하게 뚫었다.
쫓아버린 나의 등에, 차가운 타일의 벽이 격돌한다.
"잡아라!"
아코의 지시로 우리에와 에코가 나의 양팔을 좌우에서 잡고 도망칠 수 없도록 구속했다.
「놓고… … 제발…

「조용해, 치비!」
이나가 내 머리카락을 강하게 당겨 머리를 억지로 고정한다.
양팔과 머리를 덮어 무방비가 된 나의 신체.
아코가, 어제와 같이 발톱의 뾰족한 위 신발을 천천히 당겨, 목적을 정했다.
「… … 히… … 그만…
「자신의 입장, 신체에 두드려 준다!」
용서가 없는 걷어차기가 다시 내 급소로 일직선으로 튀어나왔다.

도스!!

젖은 둔한 소리가 좁은 화장실 안에 울려퍼진다.
「아가아아아아아앗!? !?」
어제를 웃도는 광기적인 격통이 전신의 신경을 뚫었다.
구속되어 있는 탓에 신체를 둥글게 할 수도 없고, 충격이 다이렉트로 하복부의 깊숙히로 뚫린다.
안구가 튀어나올 정도의 압박감과 작열의 마그마를 쏟아진 것 같은 파괴적인 통증.
「가……아…
호흡이 완전히 멈추고 하얀 눈을 벗길 것 같다.
너무 통증에 전신의 근육이 경련하고 구속을 빠져 무릎에서 바닥으로 무너졌다.
"아하하! 오늘도 좋은 소리가 났어!"
「자, 어제에 이어 제2탄 촬영중이야!」
마루에 잠시 돌고, 양손으로 필사적으로 가랑이를 안고 있는 나.
통증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휴, 휴」라고 썩은 한숨밖에 새지 않는다.
입에서는 치아의 틈새에서 덜컹 거리고 흘러넘치고, 콧물이 바닥에 늘어져 간다.
어제 아픔 부위에의 추격은, 내 정신을 근저로부터 분쇄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갖고 있었다.
「우구아… … 아……
마루를 구르고, 너무 격통에 신체를 둥글게 하는 나에게, 용서 없는 한층 더 쫓기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봐, 오늘도 또 누설하고 있지 않아-?」
아코의 냉혹한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비웃듯이 쏟아진다.
「체크해 주지 않으면 안 돼. 오줌 누수하지 않았는지, 아래 신고 있는지 확인하라」
「그래 그래! 더러운 오줌 맨이니까!」
이나와 우리에가 토해내듯 웃으면서, 난폭하게 내 허리 밑으로 손을 뻗어 왔다.
「야… … 그만해……
나는 울고 외치면서 떨리는 손으로 필사적으로 벨트와 바지의 상단을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하복부를 굽는 것 같은 금차기의 격통으로 힘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에코가 나의 양손을 힘 맡겨서 잡고 바닥에 고정해 버린다.
"네, 어른스러워!"
벨트의 버클이 거칠게 풀리고 지퍼가 내려지는 불쾌한 금속음이 울렸다.
「부탁이에요…
부끄러움과 공포로 공황이 되어 눈물과 콧물을 뿌리면서 목을 흔든다.
하지만, 내 거절 등 어떤 의미도 갖지 않았다.
난폭한 힘으로 단번에 바지가 무릎 아래까지 당겨진다.
차가운 공기가 드러난 나의 하반신을 용서 없이 쓰다듬었다.
거기에 나타난 것은 새하얀 서류 모습이었다.
「캐하하하하! 거짓말이죠, 뭐야 이거!? 브리프!?」
「야바이! 중학생도 되어 서류 입고 있는 거야!?
여자 화장실 속에 금이 가는 폭소가 작렬한다.

마스호의 셔터 소리가 연사되어 하반신 서류 일정으로 된 나의 모습이 잔혹하게 기록되어 간다.
「보지마... ... 부탁해...
나는 얼굴을 바닥에 밀어 필사적으로 허리를 비틀어 숨기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조소의 대상이 되었다.
「시롬군과 하임씨는, 두 사람의 생활로 유명하잖아?」
아코가 굴복해, 내 얼굴을 들여다 보면서 의지 나쁘게 속삭인다.
「그 팬츠 자, 언니에게 사 주었어-?」
「스스로 살 수 없는 것 같아! 언니에게『시롬은 브리프네』라고 말해져 입혀지고 있는 거야!」
「언니의 추억이기도 하고! 카하하하!」
「아니...
다르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내 목소리는 눈물과 요달레에 바르고 찢어져 있었다.
팬티라는 속옷은 신체의 라인에 매우 딱 맞는 구조를하고있다.
몸집이 작은 얇은 나의 신체에, 천은 용서 없이 밀착하고 있었다.
마루 위에서 새우 휨으로 둥근 나의 배후로부터, 우리에가 나의 엉덩이를 가리키고, 손을 두드려 웃음 굴린다.
「봐요 이거! 엉덩이에 딱 먹고 있어!」
「정말이야! 엉덩이 귀여워, 여자애처럼 예쁜 엉덩이쨩!」
「브리프, 엉덩이의 균열에 박혀 있어!
에코가 내 둔부를 빵과 손으로 힘 맡겨 두드렸다.
갑높은 타격음이 화장실에 울려, 내 몸에 굴욕의 충격이 달린다.
딱 붙은 흰 천 너머로, 내 엉덩이의 둥근 모양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근저로부터 파괴되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
얼굴에서 불이 나올 정도의 비참함에 숨이 막힌다.
「그만해... ... 이제... ... 그만해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팬티 왠지 입고 있는 소년에게는, 좀 더 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안돼"
아코의 목소리에서 더 혼란 광기가 흘러 나온다.
그녀는 용서 없이 나의 양발목을 잡으면, 힘 맡겨 위로 들어 올렸다.
「헉...
양 다리를 높게 들어 올린 것으로, 내 가랑이와, 서류가 파고든 엉덩이의 형태가, 그녀들의 눈앞에 완전히 노출되는 형태가 되었다.
「와우, 완벽한 포즈! 초아름답게 찍을 수 있어!」
이나가 마스호를 극한까지 가까워, 로우 앵글로부터 나의 가랑이와 불모호한 하반신을 화면에 담는다.
발목을 강하게 잡혀 날뛰기조차 할 수 없다.
가랑이 사이의 금차기의 격통이 다시 하복부로 달려, 심한 구역이 덮쳐왔다.
「구..... 어, 아...
"자, 더 발을 열어줘! 언니에게 보여줄 테니까!"
우리에가 나의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리려고 한다.
도망가지 않는, 끝없는 지옥.
4명의 학대와 조소는, 나의 영혼을 한입씩 탐먹도록 계속해 간다.
하복부를 찌르는 강렬한 둔통과 하반신을 계속 노출되는 극한의 치욕.
눈물로 시야가 왜곡되어 세계가 새빨갛게 물들어 보였다.
「아구.....후.....웃...
목소리가 되지 않는 비명을 지르더라도 그녀들의 잔혹한 웃음소리에 사라질 뿐이었다.
「브리프 오줌 맨의 시롬군, 더 당황해!」
아코가 다리를 잡은 채, 내 몸을 유사유사 흔든다.
흔들릴 때마다 고통당한 급소의 신경이 미친 것처럼 비명을 지었다.

「아파… … 아파… … 그만해…
「야네! 반성할 때까지 이대로!」
「촬영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어!」
에코가 내 가슴을 밟고 도망칠 수 없도록 체중을 건다.
호흡이 괴로워져 산소가 뇌로 넘어가지 않는다.
바닥에 흩어지는 자신의 눈물과 타액의 냄새가 비참함을 더욱 부추긴다.
하임 도와주고 마음속에서 외치게 될 자신을 남겨진 미묘한 이성이 필사적으로 밀어붙였다.
도움을 요구하면, 나는 영원히 누나의「보호 대상」이라고 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
하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은 보호 대상은커녕, 단지 비참한 완구일 뿐이었다.
「자, 카메라 봐! 실롬군, 피스 해줘!」
이나가 내 젖은 얼굴 앞에 마스호를 뚫고 온다.
「……웃…
나는 굳게 눈을 감고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다.
「치, 건방진 태도 무너지지 않네. 더 처벌이 필요할까」
아코가 다리를 잡는 손에 훨씬 힘을 담아 더욱 각도를 깊게 구부려 간다.
그것은 더 이상 가랑이 상태였다.
「꺄아… … !? 아…
가랑이가 당겨질 수 없는 격통이 달려, 나는 몸을 경련시켰다.
"조금 180도 개각이야-"
「히기 좋고 좋다!?」
가랑이의 뿌리가 찢어지는 통증에 메스꺼움이 입가까지 들어올려 온다.
「아하하! 굉장한 얼굴! 이 베스트 샷이 아니야!?
「진짜다, 슈퍼 재미있다! 팬티 차림으로 울부짖는 부사 얼굴 최고!」
4명의 잔학한 환성이 좁은 밀실 안에서 반향을 계속한다.
나의 존엄은 이미 가루로 부서져 형태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그냥 육괴로서 그녀들의 악의대로 계속 농락한다.
몸의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가랑이의 격통과 브리프 일정으로 다리를 내걸고 있는 수치심이 내 정신을 마모시켜 간다.
"…… 이제…… 용서해……주세요…
마침내 내 입에서 간청의 말이 새어 나왔다.
"에-? 뭐라고 말했어? 들리지 않는구나!"
우리에가 귀에 손을 대고 일부러답게 되돌아온다.
" 용서해줘…… 제발…… 내가…… 나빴어요……"
「무엇을 반성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줘!」
「브리프… … 있어…
말하는 굴욕적인 사과의 말.
　그것을 한자 한마디 새지 않고, 마스호의 동영상이 기록해 간다.
「캐하하하!『 서류는 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4명의 조소는 멈추는 커녕 점점 기세를 늘려 간다.
출두 명령에 따른 결말이 이것이다.

[Phase.4] 클래스의 여자로부터 왕따의 전기 암마

「그럼, 다음은 이 건방진 가랑이에 특별한 처치를 해 줄까」
아코의 왜곡된 목소리와 함께, 나의 양 다리를 잡는 손이 더욱 강하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한쪽 다리를 올리자 나의 서류 너머로 된 급소 바로 위에 발톱이 뾰족한 신발바닥을 딱 맞춰 왔다.
「에...
「남자가 잘 하고 있는 녀석이야.『전기 암마』라고 알고 있겠지?」
「읏...
말의 의미를 이해한 순간, 나의 전신의 피의 마음이 단번에 당겼다.
 전기 암마――본래라면 남자끼리가 장난스럽게 실시하는, 흉악하고 위험한 악희.
설마 그것을, 동년대의 여자로부터, 이런 도망칠 곳이 없는 여자 화장실로 장치할 수 있다니.
「가자!」
광기가 폭발했다.

도가가가가가가가가!!

아가가 다리를 세세하고, 격렬하게 고속으로 진동시키기 시작해, 신발바닥이 나의 무방비인 가랑이를 힘맡게 긁는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앗!?!?!?」
극한의 격통이 하복부를 관통했다.
금차기로 데미지를 입고 있던 부위에, 연속한 강렬한 압박과 마찰이 두드려진다.
구두창의 딱딱한 느낌이, 서류 1장의 얇은 천을 밀어내어, 안의 급소를 고리고리와 닦아 갈아 간다.
「아기... ... 아...... , 그만...
마찰열과 강렬한 압박으로, 급소가 찢어지는 듯한 감각.
진동이 뼈를 전해 하복부 전체에 울려 퍼져, 내장이 교반되는 격렬한 구역이 습격된다.
「아하하하하!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캐하하! 실롬군의 얼굴 위험하다! 눈을 돌릴 듯!
이나와 우리에가 웃으며 마스호를 접근시켜, 지근 거리에서 내 참극을 계속 촬영한다.
「
아구아아아...

그리그리그릿!!
가가가가가가갓!!

가랑이가 압박될 때마다 쌓인 배설물이 하복부를 안쪽에서 압박해 미칠듯한 고통이 밀려온다.
구두창이 급소 위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미끄러질 때마다, 신경의 무리가 직접 끌어당기는 감각에 눈물이 넘쳐 멈추지 않는다.
요다레와 콧물이 섞여, 수원으로 흘러내려 간다.
"이봐!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아!"
아코는 웃으면서 이번에는 속도를 느슨하게 차분히 밀어내는 무거운 스트로크로 전환했다.
구구구...
「우구우ううううう...
목소리가 되지 않는 헐떡거림이 입에서 새어, 시야가 새하얗게 깜박였다.
빠른 진동과는 달리 무겁고 둔한 압박이 급소를 밀고 뼈와 신발 밑 사이에 끼인 고기가 비명을 지른다.
호흡이 완전히 멈추고 다리 끝까지 온몸이 탄탄했다.

「어때? 이쪽이 힘들겠지?」
「그만...... 이제...
나는 울고 외치고 프라이드도 아무것도 버리고 용서를 청했다.
그러자 아코는 삐타리와 다리를 멈추고 니야니야로 내려다 왔다.
「흠? 이제 그만두고 싶어?」
「네... ... , 이제 무리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야」
아코가 발바닥을 내 가랑이에 얹은 채, 의지 나쁘게 목을 기울인다.
"시롬군, 오늘은 이미 오줌 했니?"
"......에......?"
예기치 않은 질문에, 나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 ... 뭐, 아직......입니다...
방과후, 화장실에 가려고 한 순간에 그녀들에게 습격당했기 때문에, 아직 내놓지 못했다.
「그런가! 잖아」
아코는 사악한 미소를 깊게 하고 명령하라고 말했다.
"지금 여기서 팬티 입은 채 오줌을 새면 전기 암마 용서해줄게"
「... ... 어!?」
「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입은 채 누설해버려!
「그런거... ... 할 수 없어...
브리프 일정으로 다리를 올려져 있는 것만으로도 죽을 정도의 치욕인데, 스스로의 의사로 누설이라고 하는 것인가.
거절하자 아코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거부권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낼 수 있을 때까지 전기 암마 재개해!」
「읏!?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번에는 양 다리를 힘 맡기고 짓밟는 초강렬한 난타식 전기 암마가 시작되었다.
즈동, 즈돈과 신발바닥이 급소에 두드려져 그때마다 온몸이 튀어오른다.

즈도도 도도 도도!!

「
아아...
「자, 새어!
에코가 내 가슴을 강하게 밟아 충격을 놓치지 않도록 고정한다.
격통과 압박, 그리고 하복부를 덮치는 강렬한 요의의 트리플 펀치.
가랑이가 밀려날 때마다 한계까지 모인 방광이 파열할 정도로 비명을 지른다.
「우구아! 출발한다...
"내보내라! 브리프 오줌만의 본령 발휘다!"
우리에가 재미있게 박수를 두드린다.
아자의 다리가 더욱 속도를 올리고 고속의 진동이 가랑이를 깎아낸다.

글리글리글리글리글리글리글리글리!!

소리를 내고 발바닥이 긁힐 때마다 급소에 불이 붙는 격통이 달린다.
「
아아아!
아픔을 견디지 못한 나는 마침내 자신의 이성과 존엄을 스스로 던졌다.

하복부에 힘을 담아 필사적으로 요도를 풀어준다.
그러나 격통으로 전신의 근육이 강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대로 나오지 않는다.
「자, 빨리 해라! 거짓말을 하면 더 강하게 할게!」
아코가 한층 더 체중을 걸고, 급소를 바닥을 향해 글리글리와 짓밟았다.
「아구아아아아아아앗!?」
그 순간 한계를 맞이한 하복부에서 배뇨 스위치가 강제적으로 끊어졌다.
뜨거운 액체가 기세 좋게 서류의 안쪽으로 분출한다.
「아……아……아아아…
쥬왓과 따뜻한 느낌이 딱 먹인 흰 천에 퍼져 일순간에 노란 얼룩을 만들어 간다.
엉덩이의 균열에 넣은 천까지 뜨거운 액체가 푹 푹 빠져 갔다.
"아하하하하! 나왔다 나왔다! 정말 스스로 누설했어!"
「경이야! 서류가 노랗게 물들어 온다! 더럽다!」
이나가 확실히 그 순간을 카메라에 포착해 환성을 올린다.
브리프를 적시고, 심지어 다리를 들어 올린 자세 그대로, 나는 오줌을 계속 흘렸다.
「발, 들어 올리고 있으니까, 오줌 스며들어, 딱 엉덩이에 붙어 있는 것이 잘 보인다—」
따뜻한 물과 같은 액체가 서류의 엉덩이 부분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등까지 늘어져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어 간다.
「우우… … 아아…
자신으로부터 새어 버렸다는 절대적인 사실.
소년으로서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단지 무고한 배뇨 인형으로 완성되었다.
누설 끝나도 신체의 떨림은 멈추지 않는다.
"약속대로, 전기 암마는 끝내줄게"
아코는 만족스럽게 다리를 뻗었지만, 내 다리를 잡는 손은 풀리지 않는다.
"그래도, 이것으로 처치가 끝났다니 말하지 않지?"
"……에…… 어?"
절망적인 말로, 나는 젖은 얼굴을 왜곡했다.
「스스로 오줌 누설한 브리프 모습, 굉장히 어울리고 있어, 실롬군」
우리에가 웃고 하면서, 젖은 나의 서류의 고무 부분을 손가락으로 당기고, 파칭과 소리를 내고 연주했다.
「아파… … 아구…
"자, 더 엉덩이 보여줘! 오줌으로 젖은 엉덩이!"
에코가 나의 허리를 들어 올려, 먹은 젖은 서류와 엉덩이의 형태를 강조시킨다.
생 미지근한 소변의 감촉과 4명의 조소가 나를 죽음 이상의 굴욕에 두드린다.
「다음은 어떻게 놀아 줄까?」
아코가 불적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고문을 생각하고 있다.
여자 화장실에서의 탈출은 처음부터 용서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젖은 바닥 위에서 단지 떨리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다.
「부탁이에요… … 이제 집에 가게 해주세요…
"안돼. 실롬 군이 완벽하게 처치를 받아들일 때까지 돌아갈 수 없잖아"
이나가 나의 젖은 배를 위 착용으로 찌른다.
「자,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면?『하임 언니 도와줘』라고 말해봐」
「……혐……입니다……그건……절대로…
아무리 비참한 모습이 되더라도 그만큼은 말할 수 없다.
그게 내게 남겨진 유일한 저항이었다.
「헤에, 아직 그런 의지장하는 거야?」
아아가 서리가 내린 눈으로 내려다 본다.
「그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네」
「그렇다! 더 많이 귀여워주지 않으면!」

4명의 악의는 머무르는 것을 모르고, 한층 더 깊이에 빠져 간다.
가랑이 사이의 통증이 둔한 열이되어 하복부에 남아있다.
거기에 공기에 노출되어 차가워져 가는 오줌의 불쾌감이 더해져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았다.
시야가 눈물을 흘리며 그녀들의 모습이 섬뜩하게 왜곡된다.
「브리프 오줌만, 다음은 포즈 결정해」
우리에가 나의 머리카락을 당겨, 무리하게 카메라쪽으로 얼굴을 향하게 했다.
「자, 웃어!『오줌 누설해 행복합니다』라고 얼굴하지 말아라!」
「…
웃을 수 있을 리가 없다.
단지 회개 눈물이 엉망으로 넘칠 뿐이다.
"건방지! 얼굴을 만들지 않으면 다시 두드려!"
에코가 내 허벅지를 강하게 부드럽게 친다.
바틴과 마른 소리가 울려 붉은 어음이 남았다.
「아구…
몸의 곳곳이 아프다.
하지만, 1번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고, 무력하고, 망할 만한 존재라는 사실.
하임의 동생으로 살아온 자존심이 완전히 재가 되었다.
「이봐, 이 방과후 매일 해보자」
아자가 즐겁게 제안한다.
"좋아! 일과로 하자! 실롬 군의 서류 오줌 누설 감상회!"
"절대 재미있다! 매일 다른 포즈하자!"
4명은 나의 인생을 파괴할 계획을, 마치 방과후의 매입의 약속에서도 하도록(듯이) 경쾌하게 토론하고 있다.
절망이라는 말조차 없다.
나의 일상은 완벽하게 끝을 맞이한 것이다.
「……으……아…
쉰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나를, 그녀들은 냉혹하게 내려다보는다.
여자 화장실의 천장의 형광등이, 치카치카와 섬뜩하게 명멸하고 있었다.
그 빛이, 나의 추태를 참백하게 비춰낸다.
도망치는 없다.
구원도 없다.
단지, 이 굴욕과 통증의 지옥이 어디까지나 계속될 뿐.
가랑이 사이의 무거운 둔통이 다시 한번 더 강해져 왔다.
전기 암마의 데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복부 전체에 포악한 악화를 가져왔다.
「우구……아…
"무슨 일이야? 아직 아파?"
아아가 웃고 하면서, 신발바닥으로 내 젖은 서류의 표면을 꽉 찔렀다.
「흠…… ! 만지지 말고…
「만질거야—! 왜냐하면 실롬군은 우리의 소유물이니까!」
소유권.
그 말이 내 가슴을 깊게 뿌렸다.
나는 더 이상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단지 스트레스 해소의 도구이며, 참기 위한 완구이다.
"자, 더 엉덩이 올려!"
에코가 용서 없이 내 허리를 밀어 올린다.
먹어 넣은 서류가 피부에 문지르고 아프다.

「우우...
「사진, 좀 더 찍어!」 여러가지 각도에서!」
카샤 카샤와 셔터 소리가 계속 울립니다.
나의 치부가, 굴욕이, 무의미한 모습이, 대량의 데이터로서 보존되어 간다.
이들이 세상에 나오면, 나는 다시 태양 아래를 걸을 수 없다.
그 공포가, 나를 완전하게 말하게 하고 있었다.
「시롬군, 귀엽다ー」
우리에가 조롱하면서, 내 젖은 뺨을 쓰다듬는다.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고...
「더러운 것은 너였지? 오줌 누설했으니까!」
말할 수 없다.
사실이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오줌을 새는, 더러운 존재이니까.
자존심이 완전히 붕괴되어, 사고가 정리되지 않게 된다.
다만,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란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4명의 흥분은 식을 기색이 없었다.
「이봐, 다음은 어떻게 할까?」
"더 재미있는 일하자!"
「동영상의 바리에이션 늘리지 않으면!」
즐거운 목소리가 내 머리 위에서 날아간다.
지옥의 제2막이 시작되려 했다.
나는 굳게 눈을 감고 치아를 먹는다.
몸의 통증을 견디고 마음의 통증을 견디고 오직 오로지를 견디는다.
눈물이 다할 일은 없고, 뽀로뽀로와 바닥의 웅덩이로 떨어진다.
자신이 어디까지 부서져 가는지 상상하는 것조차 무서웠다.
하임의 얼굴이 뇌리를 넘는다.
그녀는 지금 무렵, 집에서 내 귀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이런 추악한 모습이 된 나를,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
알고 싶지 않다.
절대로 죽어도 알려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혼자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떠한 참혹한 처벌을 받고도.
「자, 실롬군. 다음 처치 시간이야」
아코의 차가운 손이 다시 내 몸으로 늘어났다.
어둡고 축축한 여자 화장실 속에서 내 비명이 다시 울려퍼진다.
끝없는 어둠이 나를 완전히 삼켜 갔다.
나는 단지, 스스로의 무력함을 저주하면서, 한층 더 고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도망가지 않는 케이지 속에서 참극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이어지는 것이었다.
나의 의식은 굴욕과 격통의 물결 속에 깊게 가라앉았다.

[Phase.5] 관장

마루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나 앞에서, 에코가 가방의 바닥을 굳이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래, 나, 실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해 그녀가 가슴 앞에서 내걸어 보인 것은, 흰색과 파랑의 장식의 상자에 들어간 무화과 관장이었다.
둥근 사복 모양의 용기와 그 앞으로 뻗어있는 가는 노즐을 본 순간, 내 전신으로부터 피가 느껴졌다.
나도 관장이 무엇을 하기 위한 약인지 알고 있다.
그런 것을 엉덩이에 주입되면 맹렬한 편의에 습격되어 똥이 나올 것 같아 버리는 것을.
「엣, 에코… … 너, 변비였어?」
아코가 눈썹을 비틀어 물었더니, 에코는 일부러 검지 손가락을 꽉 흔들었다.
"아니, 변비는 나가 아니에요."
「하? 그럼 어째서 그런 것 가지고 다니고…
거기까지 말한 이나가, 확실히 눈을 뜨고 나의 서류 모습을 내려다봤다.
우리에도 곧바로 알아낸 것 같고, 자신의 입가를 양손으로 덮는다.
「… … 거짓말이죠!?
「그래! 실롬군을 위한 스페셜 메뉴야!」
에코가 기쁘게 무화과 관장을 손가락으로 만지자 밀실 화장실 안에 폭발적인 대폭소가 솟아났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남자의 내가?
클래스의 여자에게?
관장되는……?
너무 굴욕적인 이야기에 체온이 살짝 내려간다.
「캐하하하하! 진짜로!? 남자학생에게 무화과 관장을 해버리는 거야!?」
「야바이! 천재 너무! 최악의 처치잖아 그것!」
「우와! 남자의 서류 벗기고 무화과 관장이라든지 들은 적 없어!」
「오줌 누설한 다음은 똥 새기려고 하는 건!? 배 아파!」
4명은 어깨를 두드리며, 바닥을 밟으면서 배를 안고 활기차고 있었다.
"그래도, 오줌만으로는 부족하죠?"
「확실히 오줌 내게 했을 뿐이라면, 아직 반성이 부족한 것!」
「무화과 관장 넣으면, 절대로 참을 수 없어서 똥 나올거야!」
"우케루! 빨리 보고 싶다! 실롬 군이 똥 새는 곳!"
여자들의 잔혹한 환성이 좁은 개인실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코가 내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올리고 사악한 미소를 짓고 선고했다.
「그렇다고 해서 시롬군, 앞으로 무화과 관장의 시간으로-스!」
「헉…
"이봐, 실롬 군이야, 지금까지 관장한 적 있나?"
우리에가 웃기면서 물어 온다.
하임에 관장을 한 기억이 뇌리를 뒤쫓았다.
하지만 그런 굴욕적인 관장 체험담을 그녀들에게 말한다니 너무 부끄러워서 절대 견딜 수 없다.
내가 입술을 씹고 굳게 입을 닫고 있을 때, 아가가 자극된 것처럼 손을 뻗어 왔다.
나의 젖은 서류 위에서, 무방비한 음낭 부분을 쭉 역임에 잡아 올린다.
「아가아아아아아앗!? !?」
생생한 둔통이 급소에 달려, 나는 너무나의 고통에 절규했다.
"빨리 대답이야! 질문 받고 있으니까!"
「구…… 어, 아…
고환을 잡고 찌그러지는 강렬한 고통에 위험하게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대답하면 더 바보가 된다.

나는 아픔을 견디면서 눈물을 흘려 필사적으로 넉넉하게 정했다.
「아하하! 묵묵하다는 것은 관장된 경험 있다는 거잖아!」
「쿠우…
이나가 내 침묵을 조롱하고 기쁘게 손을 두드린다.
「그럼, 무화과 관장하면 곧 강한 편의가 와서, 똥이 나올 것 같아지는 것도 알겠지?」
「아니… … 싫어요…
「똥 내기 위해 하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에코와 우리에가 내 팔과 허리를 억지로 들어 올려 바닥에 양손과 양 무릎을 붙였다.
4번째 자세로 되어 엉덩이를 높이 튀어나오는 모습이 된다.
「그만해… … 보지 마라…
다음 순간 아코의 손이 내 젖은 서류의 허리 고무에 걸려 단번에 아래로 당겨졌다.
쪼그리고 천이 미끄러져 내 숨겨야 할 최심부——엉덩이와 항문이 차가운 외기에
노출되었다.

체험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으면 계속되는 제품판도 읽어 주시면 기쁩니다.